

보도시점 : 2024. 3. 5.(화) 11:00 이후 (3. 6.(수) 조간) / 배포 : 2024. 3. 5.(화)

‘도로의 미래,’ 새로운 발전방향 모색한다

- 6일 도로 미래상 정책 세미나… 각계 전문가 모여 논의의 장 열어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3월 6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한국도로학회와 함께 도로 분야의 새로운 미래상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*를 개최한다.

* 도로분야 전반에 대한 논문발표(53편), 미래도로 발전방향 모색 특별세션 등 (사)한국도로학회: '99년 설립, 도로분야 산·학·연·관 전문가 등 회원 약 4천명

- 이번 세미나에서는 ‘새로운 미래도로와 지하도로, 무엇이 필요한가?’를 주제로, 각 계 도로 전문가들이 자율협력, 디지털화 등을 위한 미래 도로와 지하도로 인프라 건설에 대한 참신하고 다양한 연구 성과들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.

- 먼저, ① 자율주행 등 디지털 전환 가속화가 도로인프라에 미치는 영향과 디지털초고속 모빌리티를 견인하는 미래형 도로(X-Road)에 대한 정책과제,
- ② 지하도로에서 운전자들이 인식하는 위험과 해소 방안, 교통제어 기술 개발의 현황과 미래 등 지하도로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한 정책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.

- 한편, 국토교통부는 자율협력주행에 적합한 미래도로 설계방안 연구, 도심지하 인프라건설 고도화를 위해 연구용역(R&D)을 추진하고 있으며, 올해는 고속도로 설계속도 상향을 위한 기술과제 연구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.

- 국토교통부 주종완 도로국장은 세미나에 참석하여 “급속하게 다가오는 디지털 모빌리티 시대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최선의 연구결과를 적극 수용하고 도로정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과제들을 적극 지원”하겠다고면서,

- 지하도로에 대해서도 “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하도로의 안전성 제고 방안 등을 잘 준비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힐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도로국 도로건설과	책임자	과 장 오수영 (044-201-3888)
		담당자	사무관 신종욱 (044-201-3917)
<공동>	한국 도로학회	책임자	회 장 최준성 (02-950-7565)
		담당자	부회장 박대욱 (063-469-4876)
		담당자	이 사 박호철 (031-330-6500)



□ 추진 배경

- 대내외 소통 강화와 새로운 도로정책 발굴 등을 위해 국토부 및 한국도로학회 공동주관으로 세미나 추진

□ 세부계획

- 일시/장소 : 2024. 3. 6.(수) 10:00 / 서울(aT센터 세계로룸 1,2)
- 주제 : 새로운 미래도로와 지하도로, 무엇이 필요한가?

시 간	구 분	계 획(안)
9:30 ~ 10:00		등록 및 자료집 배포
10:00 ~ 10:15	개회식	사회 : 박철우(강원대 교수)
	축사	도로국장
	환영사	최준성 도로학회장(인덕대 교수)
10:15 ~ 11:15	주제발표1 10:15~10:45	초고속도로, 지하도로는 우리 도로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? [명지대 박호철 교수]
	주제발표2 10:45~11:15	디지털전환 가속화와 미래도로 정책방향 [국토연구원 고용석 연구위원]
11:15 ~ 11:30	break time	
11:30 ~ 12:00	토론	좌장 : 최준성(도로학회 회장)
		패널 : 국토부 2인, 도로학회 2인* * 유정복 사업부회장(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) 이동민 지하도로분과위원장(서울시립대 교수)
12:00	폐회	